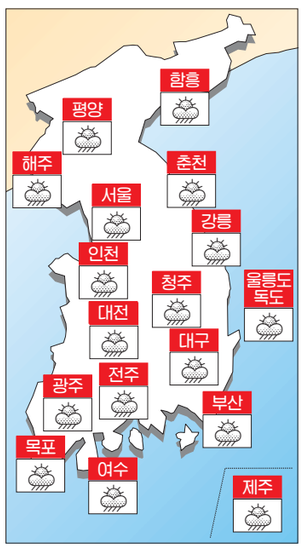
날씨

'장대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7월 1일 (음 6월 6일)

광 주	22~25℃
목 포	22~24℃
여 수	21~23℃
완 도	22~24℃
구 례	22~25℃
해 남	22~25℃
장 흥	22~25℃
고 흥	21~24℃
순 천	22~25℃
영 광	21~25℃
진 도	22~25℃
전 주	23~26℃
남 원	22~26℃
정 읍	22~26℃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풍
파고 1.0~2.5m
서해남부 먼바다
남서~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먼바다
남서~서풍
파고 1.5~2.5m

▲해뜸 05:21 ▲해짐 19:51
▲달뜸 10:21 ▲달짐 23:25

목포 밀물 05:43 17:47 썰물 11:11 23:03 여수 밀물 00:14 12:23 썰물 06:23 18: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날 씨						
최저/최고	22/28	21/24	21/25	22/25	21/24	21/28

■ 만학열기 후끈 '광주학당' 늦깎이 학생들

'문맹의 어둠' 서서히 걷히는 것 같아요

'꿈을 돕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광주학당'의 '문해(文解)반' 강미자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받아쓰기를 하며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자는 배울 필요 없다는 편견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했던 '어머니'들이 광주의 한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학당에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를 들었다.

'꿈을 돕는 사람들'(교장 이정자)이 지난달 29일 광주 서방시장 내 한 허름한 건물에 개설한 '광주학당'의 5평 남짓한 자그마한 공간은 만학도(晩學徒)들의 학습 열기로 달아올랐다.

'문해(文解)반' 수업을 받고 있는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 9명은 한글을 아직 제대로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김선도(68) 교감이 '길을 걷고 있다'를 쓰라고 하자, 강미자(여·61)씨는 '걷'자의 받침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식은땀을 흘렸다.

글 못읽는 사실 탄로날까 조마 조마
자식 다키우고 손주 보고 나서야
못 배운 한 원없이 풀어요

학생들은 말 그대로 '일자무식'이다. 어렸을 적 울며불며 학교 보내달라고 졸랐지만, 부모 손에 이끌려 학교 대신 논밭으로 나가야 했다. 나이 들어서는 '주렁주렁' 달린 자식들 키우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주위에서 부녀회장 하라고 하면 행여 글을 못 읽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손을 휘~휘~ 내저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교회 집사도 고사 했다.

자식을 다 키우고, 손자를 보고 나서야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쉽게 공부에 접하기는 힘들었다. '광주학당'의 소문을 듣고 입구까지 갔다가 창피해서 되돌아오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하지만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배우지 않으려는 '자세'라는 것을 알았다.

민순녀(가명·여·68)씨는 잘 깎인 몽당연필 10여자루를 '개구리 왕눈이' 필통에 담아왔다. "언젠가는 나도 공부해야지"하며, 초등학생 손자가 버린 것을 하나하나 주워 모은 것이다.

학당에 다닌지 3개월 된 김형자(가명·52)씨는 "문맹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조만간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계획이다. 계속 공부해서 2년제 대학이라도 가보는 것이 꿈이다.

'광주학당'은 지난 1990년 처음으로 문을 연 뒤, 매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문해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 백명의 '학생'들이 이 곳에서 글을 깨우쳤다.

현재는 25명의 학생이 등록했지만 15명 정도만이 나온다. 모두 여자들이다. 이중 4명은 화순과 담양에서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달려온다.

수업은 이정자 교장과 김선도 교감 외에 7명의 조선대·광주교대 학생들, 대부분 퇴직 교사인 1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번갈아 가며 한다. 이들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참조해 교재를 직접 만들었다. 1년 과정을 마치면 떠듬거리기는 하지만 글을 읽을 수 있고, 간단한 문장도 쓸 수 있다.

김선도 교감은 "이들은 유교사상과 암울했던 시대가 낳은 '피해자'"라면서 "교사들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어 날마다 바뀌는 바람에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나원참 〈6867〉 김종두

구권화폐 교환 사기행각 '큰 손' 장영자 또 10년형

'큰 손'장영자(여·62)씨가 대법원에서 10년형이 확정돼 환갑을 넘긴 나이에 20년을 보낸 수감 생활을 또 연장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고수익 채권 투자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사기죄·공갈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살펴봐도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9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3월 가석방됐지만, 출소 1년10개월 만인 1994년 1월 140억원의 차용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장씨는 1998년 8·15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구속되면서 1992년의 가석방이 취소되는 바람에 남은 형을 복역하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광주·전남 최고 120㎜ 비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주말인 1일 광주·전남에 40~80㎜, 많은 곳은 12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번 비는 천둥·번개를 동반하겠고, 곳에 따라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파도가 2~3m로 높게 일겠다"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비는 휴일인 2일까지 이어지다가 오후께 잠시 그치겠으나, 다음날인 3일에도 한 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4일은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반짝'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공무원 인사정보도 공개 대상"

광주지법 행정부 판결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박모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전남도의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정보공개 요구는 전남도 내 시·군 단체장들이 피고의 요구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 목적에 비춰 성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에 관련된 행정정보라 하더라도 이미 피고의 인사발령이 종결된 이후이므로 피고의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전남도가 지난해 7월 5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도 전입 인사발령을 낸 뒤 임용장을 받으러 온 나주시 공무원에 대해 임용장 교부를 거부하자 이와 관련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었다. 당시 전남도는 나주시가 5급 사무관에 대한 도-시군 간 인사교류를 거부해 나주시 하위직 공무원의 도 전입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공무원노조의 정보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사 임용 동점때 유공자 우대 합헌"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동점자 처리조항은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정신·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해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청구인들은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동점자 처리 때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친일 반민족 행위자 1차대상 120명 발표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는 지난달 30일 중추원과 일진회 간부, 종교인, 언론인 등 친일·반민족 행위 1차 조사대상자 120명을 발표했다.

친일규명위는 신소설 '혈의누'를 쓴 이인직 대한신문사 사장, 유학주 일진회 평의장, 강경희 중추원 찬의, 백성수 전 주경찰서 경부 등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81명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으며 연고가 파악된 나머지 39명은 직계 비속 및 이해관계인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시기를 3개 시기(제1기 1904~1919년, 제2기 1919~1937년, 제3기 1937~1945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된 조사 대상자는 제1기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20명 중에는 매국·수작(受爵)자 27명, 중추원 관련자 21명, 일진회 관련자 27명 등 의병 탄압·진압에 앞장 서거나 한일합병을 적극 지지하고 선전한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광주 호국영령 추모제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광주광역시 지부(지부장 박용윤)는 지난달 30일 광주공원 현충탑 앞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광주호국영령 추모제'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리니지' 대규모 명의도용 방조 엔씨소프트 임원 첫 형사 입건

명의 도용을 방조한 혐의로 온라인게임업체 임원이 형사입건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경찰이 방조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검찰 판단 및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명의도용 사건의 방조 책임을 물어 엔씨소프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김모(44) 부사장을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게임 아이템 작업장 운영자 7명이 28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리니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는 수천~수만명분 사용료가 똑같은 은행 계좌로부터 한꺼번에 입금되고 동일한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에서 대량 접속이 이뤄지는 등 명백한 명의도용 정황을 파악하고 심지어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서도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우리도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으며 무차별적으로 차단조치를 취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경찰이 방조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해찬 '3·1절 골프' 이명박 '황제 테니스' 검찰 무혐의 결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3·1절 골프'와 '황제 테니스'사건에 각각 연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전 총리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접대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 다른 피고발인들의 범법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제 테니스' 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명박 시장이 남산 실내테니스장을 독점 사용했다기보다는 테니스동우회의 초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같이 운동을 했고 이 시장이 이용료도 미리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충석 여수시장 '아름다운 퇴장'

4년간 급여 2억5,190만원 사회단체 기부 약속 지켜

김충석(65·사진)여수시장이 4년간 자신의 급여 전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2002년 7월 취임 이후 이달 20일까지 받은 급여는 총 2억5천190여만원이다.

김 시장은 이 중 지난해 8월분까지의 급여 1억9천700여만원을 '사랑이 가득한 집'에, 이달 20일까지의 급여 5천400여만원은 사회복지법인 '은현'에 기부했다. 특히 '사랑이 가득한 집'은 김 시장이 임기 4년간 기부할 돈을 사전에 집행, 2003년 4월 개원한 장애아보호시설이다.

김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후보로 나선 김 시장은 당시 '시장에 당선되면 시장 급여를 받지 않고 전액 장애우 복지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성매매알선 업주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퇴폐 마사지업소 주인 서모(여·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5월부터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M남성휴게텔이라는 퇴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모두 180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구의원 당선자 경력 허위 기재 피소

쌍나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광주시 서구의원으로 당선된 A씨가 명함과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지난달 30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에서 서구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B(여·64)씨 등 2명이 "A씨가 홍보물에 서구 치평동 모 아파트 상무소각장 주민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고 기재했지만 확인 결과 전혀 활동 경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

○…A씨는 "오래전 주민대책위에 활동했다"면서 "아파트 자치회장이나 주민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